

지역 매아리

부안군, 귀농귀촌 기초  
영농기술교육 수료식 가져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교육생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5일부터 총 18회(110시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부안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과 귀농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초보농업인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전문 강사를 섭외해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은 귀농·귀촌인들이 농업과 농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감자 등 부안지역의 주요 소득작물에 대한 재배기술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갈등해소 및 소통, 산배 귀농인의 귀농정책 사례, 농업 세무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됐다.

이조병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제10기 귀농귀촌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여율이 높고 농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 부안군의 새로운 농업·농촌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며 "귀농·귀촌사업은 부안군의 핵심 사업으로 귀농귀촌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상담부터 정착까지 모든 편익을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수원지역 청소년 초청  
'정읍 역사·문화 체험' 추진

정읍시가 수원시와 우호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내일부터 10일까지 수원지역 중등 1~3학년 청소년 60명과 인솔교사 5명을 초청해 정읍 역사·문화 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지역 청소년들과 인솔교사가 함께 하는 방문단은 정읍시 일원을 돌며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태산선비문화의 중심인 무성서원을 찾아 선열들의 숨결을 느끼고, 택견배우기, 정읍의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단풍나무 펜슬, 구절초 버블리, 오곡강정 만들기 등 정읍의 다양한 모습을 공예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에 나서 혁명의 시작과 전개 과정 등을 설명 들으며 동학혁명의 의의와 정신을 기리는 시간도 갖는다.

두 도시는 상호협력의 바탕으로 해마다 상대 도시의 청소년을 초청해 두 도시의 역사·문화·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수원시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청소년 교류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청소년 역사문화체험을 시작으로 두 도시의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재생사업 본격 추진

##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이달 착수... 원도심 3개거리 환경개선으로 활성화 기대

정읍시 원도심의 대표 거리인 새안로, 쌍화차거리, 우암태평로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으로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원도심 내 3개 거리를 지역 특성에 맞추어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야간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명품특화거리로 탈바꿈한다.

시민창안 300거리란 시민들이 회의를 통해 직접 창안해 낸 이름으로 샘골시장, 시기성당, 우암태평로가 각각 100년 이상 된 것을 의미한다.

시에 따르면 예전에는 정읍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거리였으나 물리적 환경이 나빠지고 방문객 감소 등으로 상권이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나후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에는 국비 32억, 시비 32억으로 총 사업비 64억원이 투입된다. 5월중 거리별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하여 2020년 상반기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쌍화차 특화거리'는 쌍화차 상징경관조형물과 안내사인, 고풍스런 이미지의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내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패션의거리 새안로'는 기존 거리형태를 유지하면서 상징조형물과 조명 등 설치를 하고 '빛의거리, 창업의거리 우암태평로'에는 시기성당을 활용한 야간조명과 진입게이트, 썬지팡이 이 조성된다.

또한, 쌍화차거리와 우암태평로는 사업비 21억5000만원(한전 7억5000, 시비14억) 추가 투입하여 지하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단축 및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전선과 전주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으로 조성한다.

특히, 쌍화차거리와 우암태평로는 특화거리가 조성된 후 기존의 양방향 교통체계가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차량통행에 다소 혼선이 예상되지만 사전홍보와 교통시설물 보강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유진섭 시장은 "3개거리가 정읍시의 특색을 살린 명품거리로 조성되어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가 최근 고창군청에서 '복분자·발작을 안정생산 및 기술보급 등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과학영농이 실현되는 농생명 식품수도로 발돋움

### 고창군-국립농업과학원 MOU체결... 연구성과 확산 협력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부장 윤종철)가 고창군청에서 '복분자·발작물 안정생산 및 기술보급 등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과 농업과학원은 지역농업과 특화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연구와 현장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고창군은 고창특산품인 복분자의 과학적인 고사원인 규명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농업과학원은 고창 복분자의 고사원인을 찾고, 토양분석과 시비관리 자료 공유를 통해 최적 토양 관리 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적합한 기후변화대응 작물 생태 연구와 활용기술도 보급해 멜론, 인삼을 뛰어넘을 소득·전략

작물도 탄생할 전망이다.

이밖에 고창의 자연유산인 운곡습지를 활용한 치유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과학적으로 분석해 연구한 데이터를 활용해 복분자 고사원인을 찾고, 고창 토양의 우수성 입증에 노력하겠다"며 "양 기관이 적극적인 상호협력력을 통해 고창농업이 한 단계 발전해 농업인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SFTS 환자 발생 따른 진드기 물림 주의"

### 정읍 거주 80대 여성 치료받아...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강화

정읍시가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지역 내 발생함에 따라 농사일 등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올해 전북도 첫번째, 전국에서는 두번째 확진환자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치료 중이다.

이 환자는 고열,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SFTS 의심하여 지난 3일 오전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잠진드기에 물린 후 주로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25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북에서는 1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6명이 사망했다.

SFTS는 고열과 오심, 구토, 전신근육

통,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진드기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긴팔·긴소매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바로 샤워를 하며 진드기에 잘 물리는 부위(귀 주변, 팔 아래, 무릎 뒤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정읍시는 진드기 매개 질환 발생에 대비해 방역대책과 역학조사반을 가동하고, 시민 대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통합브랜드 추진... 연내 개발 청신호

고창군은 최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통합브랜드 및 스토리텔링 개발 관련, 추진위원 등 16명이 군청 상황실에 모여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가졌다.

앞서 고창군은 올초부터 각계 전문가들과 농업, 예술단체 등과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제안된 의견을 추진위원회와 공유하고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객에게 마음을 주는 브랜드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창군의 역사와 문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포함한 한반도 첫수도 고창군의 미래 지향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효의 정신 발전시키는 계기 되길"

정읍시, 초산동민의 날·효도문화축제 성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9회 초산동민의 날 및 제11회 효도문화축제가 지난 4일 호남중·고등학교 해강관에서 열렸다.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정열)가 주최한 행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을 드렸다.

행사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어르신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읍시립국악단의 경쾌한 장단을 시작으로 대중음악과 서커스 등 신나는 예술버스 효도 공연이 이어졌다. 또 동민들의 장기자랑도 열려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시상식에서 동민의 장(효열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효의 귀감이 된 한석훈 씨가 받았다.

시장 감사패는 노영순 씨와 최정희 씨가, 국회의원 표창장은 박창규 노인회장이, 주민자치위원장 감사패는 유순국 씨가 각각 수상했다.

윤복남 동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어르신과 소통하고 화합하며, 효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의 고장 초산동민의 발전을 위해 동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o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부안강산생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생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생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